

고려말-조선초 經部 중국서적의 수입과 간행에 대하여

노 요 한*

< 目 次 >

- | | |
|----------------------|----------------------|
| I. 들어가며 | IV. 기타 정부 서적의 수입과 간행 |
| II. 『四書五經大全』의 수입과 간행 | V. 나오며 |
| III. 춘추류 서적의 수입과 간행 | |

< 국문 초록 >

본고는 經部를 중심으로 고려말-조선초에 수입된 중국본과 조선에서의 覆刻·活印의 사실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세종은 한문고전의 研鑽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국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 문화국가 건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經史子集의 학문 모든 방면에 걸친 고전의 研鑽을 통해 그 학술문화의 성과를 섭취하였으며, 그 연찬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교국가로서 신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문물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곧, 세종은 즉위 후 여러 루트로 고전주해서의 善本을 구하여 이를 활자로 간행하거나 복각하였으며, 서적을 단순히 摹印하거나 복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집현전 학사들과의 공동 연찬을 바탕으로 조선독자의 纂註本들을 새로 편찬·인쇄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초 유학의 연찬에 사용된 한문고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조선에서 다시 편찬·간행된 고전 주해서의 저본을 이루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yhnoh1214@korea.ac.kr

있을까. 고려 때는 서적의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조선전기에는 명나라 禮部에 咨文을 보내어 欽賜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선초 『사서오경대전』, 『대학연의』, 『자치통감』, 『통감강목』 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입된 서적들이었다. 그와 함께 조선 초에는 고려조에 전래하여 있던 주요 서적의 覆刻도 함께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四書五經大全』, (元)董真卿 編 『周易會通』, (元)吳澄 撰 『易纂言』, (元)董鼎 撰 『書集傳輯錄纂註』, 鄒季友 音釋 『書集傳』과 『詩集傳』, 集賢殿 受命編 『春秋經傳集解』, 胡安國 傳 『春秋胡氏傳』, (宋)林堯叟 註 『春秋經左氏傳句解』, 李廉 輯 『春秋諸傳會通』 등을 대상으로 이들 서적의 수입 및 간행 사실에 대해 개괄하였다.

【주제어】 중국본, 주해서, 경부, 『四書五經大全』, 『周易會通』, 『易纂言』, 『書集傳輯錄纂註』, 『(音釋)書集傳』, 『(音釋)詩集傳』, 『春秋經傳集解』, 『春秋胡氏傳』, 『春秋經左氏傳句解』, 『春秋諸傳會通』

I. 들어가며

조선 조정은 건국 초 전 왕조의 불교를 대신하여 유학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상과 전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유교, 곧 주자학을 국시로 하는 국가의 건설을 도모하였다. 조선 조정은 건국 초부터 조정이 중심이 되어 유학에 대한 研鑽과 국법 체계의 확립을 서둘렀다. 하지만 이 시기는 주자학이 처음 수입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전 왕조의 불교 유습이 여전히 짙게 남아 있던 시기였으며,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국가 건설이라는 큰 지향은 정해졌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여전히 모색 중이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정해진 것이 적었기에 거꾸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던 때, 새로운 출발점에 선 조선왕조는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사상에 대한 연찬과 그를 바탕으로 한 자국문화의 정비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즉위한 세종은 한문고전의 연찬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국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 문화국가 건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經史子集의 학문 모든 방면에 걸친 고전의 연찬을

통해 그 학술문화의 성과를 섭취하였으며, 그 연찬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교국가로서 신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문물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곧, 세종은 즉위 후 여러 루트로 고전주해서의 善本을 구하여 이를 활자로 간행하거나 복각하였으며, 서적을 단순히 摹印하거나 복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공동연찬을 바탕으로 조선독자의 纂註本들을 새로 편찬·인쇄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초 유학의 연찬에 사용된 한문고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선 조정은 한문 고전의 주해서를 어떤 방식으로 재가공하고 재편집하였으며, 조선에서 다시 편찬·간행한 고전 주해서의 저본을 이루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선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한문고전을 수입하였으며 서적의 유통 사정은 어떠한이었을까. 조선에 이미 수입되어 있었으나 널리 열람되지 못한 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수요가 있었음에도 지식사회에 보급되지 못한 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선초 국가 형성기 학술문화의 저변과 출판문화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하 보고는 국내 국공립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말-조선초 수입 중국본을 경부를 중심으로 개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선에서의 문헌가공 및 편찬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四書五經大全』의 수입과 간행¹⁾

『四書五經大全』은 『性理大全』과 함께 세종 1년인 1419년에 완질이 수입되었다.²⁾ 곧, 태종의 서자 敬寧君 李裨(1402~1458)가 贊成 鄭易, 刑曹參判 洪汝方

- 1) 이 절은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여 작성함. 鄭亨愚,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東方學志』 63,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9; 沈慶昊, 『韓國漢文基礎學史』3, 태학사, 2012, pp.568-570.; 金文植, 『朝鮮時代 中國書籍의 輸入과 刊行』, 『奎章閣』 2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魯煥勳, 『朝鮮初期 官撰 註解書의 文獻學的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제2장.
- 2) 『世宗實錄』 卷6, 世宗 1年 12月 7日(1419, 永樂17).

등과 중국을 다녀오면서 명나라 황제(곤, 成祖)에게서 麒麟·獅子·福祿·隨現寺·寶塔寺 등 그림 5폭 등과 함께 당시 새로 편찬한 『性理大全』·『四書五經大全』을 欽賜받아 왔다. 세종 1년(1419) 명나라 사신 太監 黃儼 등이 와서 왕자의 謝恩을 요구하자 敬寧君이 여러 왕자들을 대신하여 謝恩使로 북경에 다녀온 것이었다.³⁾ 이때는 명나라에서 『사서오경대전』이 완성된 지 4년여 후의 시점이었다.

세종은 재위 6년이던 1424년 2월에 庚子字로 『大學章句大全』 50벌을 찍어 문신들에게 頒賜하였다.⁴⁾ 그 이듬해 10월에는 『성리대전』·『사서오경대전』 등을 인쇄하기 위해 冊紙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관찰사에게 바치게 하였다.⁵⁾ 다시 그 이듬해인 1426년 11월에는 進獻使 兪摠制 金時遇가 명나라 황제의 칙서와 함께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 1부 도합 1백 20권과 『通鑑綱目』 1부 도합 14권을 흡사받아 왔다. 사신으로 온 尹鳳이 돌아갈 때 세종은 『사서오경대전』·『성리대전』·『宋史』 등의 서적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응하여 진헌사 김시우가 돌아올 적에 명나라 측에서 증여한 것이었다.⁶⁾

이때 들어온 『성리대전』과 『사서오경대전』은 覆刻에 사용되었다. 곤, 『성리대전』과 『사서오경대전』의 복각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 세종 9년(1427) 7월에 경상도 감사 崔府가 『성리대전』을 上梓하여 올리자,⁷⁾ 같은 해 9월 세종은 다시 『周易大全』·『書傳大全』·『春秋大全』을 경상감사에게 보내 『성리대전』의 예에 의거하여 목판으로 인쇄하도록 하였다.⁸⁾ 또 같은 해 10월에는 전라도 감사 沈道源에게 『詩傳大全』·『春秋大全』을 보내면서 전에 보낸 『性理大全』의 예를 따라 책을 찍어내도록 전지하였다.⁹⁾ 이

3) 『世宗實錄』 卷5, 世宗 1年 8月 17日(1419, 永樂17).

4) 『世宗實錄』 卷23, 世宗 6年 2月 14日(1424, 永樂22). “分賜鑄字所所印『大全大學』五十件于文臣.”

5) 『世宗實錄』 卷30, 世宗 7年 10月 15日(1425, 洪熙1). “傳旨忠淸·全羅·慶尙道監司 欲印『性理大全』·五經四書, 其冊紙給價換楮, 忠淸道三千(帖)帖·全羅道四千帖·慶尙道六千帖, 造作以進.”

6) 『世宗實錄』 卷34, 世宗 8年 11月 24日(1426, 宣德1).

7) 『世宗實錄』 卷37, 世宗 9年 7月 18日(1427, 宣德2). “慶尙道監司, 進新刊『性理大全』.”

8) 『世宗實錄』 卷37, 世宗 9年 9月 3日(1427, 宣德2). “傳旨慶尙道監司 今送『大全易』·『書』·『春秋』, 依『性理大全』例刊板.”



<圖 1> 서울大學校 奎章閣 藏 庚子字本 『論語集註大全』 卷10 首葉
(一窠古貴 181.1-H65nb)

듬해인 세종 10년 12월에 『성리대전』과 『경서대전』을 간출한 사람에게 米穀을 내리고 있어,¹⁰⁾ 『성리대전』과 『사서오경대전』의 복각 작업은 이 무렵에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재위 11년이던 1429년 2월 府院君 李稷 등 41인에게 『周易大全』·『書傳大全』·『春秋大全』을 하사하였다.¹¹⁾ 같은 달 23일 경상도 감사가 새로 새긴 『周易大全』·『書傳大全』·『春秋大全』의 책판을 바치고,¹²⁾ 3월 6일 전라도 감사가 새로 새긴 『詩傳大全』과 『禮記大全』의 책판을 바치자,¹³⁾ 주자소에 내려 보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 9년(1427) 9월 3일에 경상도 감사

9) 『世宗實錄』 卷38, 世宗 9年 10月 28日(1427, 宣德2). “傳旨全羅道監司: ‘今送『大全詩』·『春秋』, 依前送『性理大全』例, 刊板.’” 『春秋大全』은 『禮記大全』의 잘못된 듯하다. 鄭亨愚,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東方學志』63, 延世大學學研究院, 1989.

10) 『世宗實錄』 卷42, 世宗 10年 12月 13日(1428, 宣德3). “賜刊『性理大全』及經書大全人, 米穀有差.”

11)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2月 13日(1429, 宣德4). “賜府院君李稷等四十一人, 『大全易』·『書』·『春秋』各一件.”

12)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2月 23日(1429, 宣德4). “慶尙道監司, 進新刊『易』·『書』·『春秋』板子, 命下鑄字所.”

13)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3月 6日(1429, 宣德4). “全羅道監司, 進新刊『詩』·『禮』板子, 命下鑄字所.”

에게 『周易大全』·『書傳大全』·『春秋大全』의 판각을 명하고 같은 해 10월 28일에 전라도 감사에게 『詩傳大全』·『禮記大全』의 판각을 명하였으므로, 판각에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서대전』은 강원도에서 판각되었다. 이 사실은 세종 10년(1428) 1월에 강원도 감사 趙從生이 『사서대전』을 이미 세 곳에 나누어 刊板하고 있는 중이며, 각기 누락을 지어서 나누어 보관하여 책이 섞이지 않게 하였으며, 혹 닳아 없어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 改刊하고 있다는 등 『사서대전』의 간각 작업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¹⁴⁾ 세종 11년(1429) 4월 강원도 감사 조종생이 『사서대전』 50권을 인쇄하여 바치자, 4건은 宗學에, 3건은 집현전에 각각 내리고, 그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¹⁵⁾

江原道	慶尙道	全羅道
『四書』	『周易』, 『書經』, 『春秋』, 『性理大全』	『詩經』, 『禮記』, 『性理大全』

변계량은 세종 9년(1427) 12월 「四書五經性理大全跋」이라는 제목으로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에 대해 발문을 작성하였다. 같은 해 7월에 경상도 감사 崔府가 『성리대전』을 올리자 9월에 세종은 다시 『周易大全』·『書傳大全』·『春秋大全』을 경상감사에게 판각하도록 하고, 또 같은 해 10월에는 전라도 감사에게 『詩傳大全』·『春秋大全』을 보내면서 전에 보낸 『性理大全』의 예를 따라 책을 찍어내도록 전지하고 있으므로, 이 발문은 『性理大全』의 판각을 마치고 『四書五經大全』의 판각이 이루어지고 있던 무렵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변계량의 「四書五經性理大全跋」은 다음과 같다.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은 명나라 太宗 文皇帝가 儒臣들에게 명하여

14) 『世宗實錄』 卷39, 世宗 10年 1月 26日(1428, 宣德3). “禮曹啓: ‘江原道監司報: <『四書大全』, 已分三處刊板, 各構樓閣, 分類藏置, 毋使亂秩, 如或泐缺, 隨即改刊, 守令交代之時, 明載解由, 在前册板, 亦依此例. 其藏書閣營造, 聽自願僧徒, 功訖賞職> 請依所報, 竝諭他道, 依此施行.’ 從之.”

15)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4月 22日(1429, 宣德4).

편집한 책이다. 황제께서 우리 전하의 好學이 至誠에서 나왔다 여기서어 특별히 이 책을 하사하시니, 모두 229권이였다. 우리 전하께서 널리 傳布하실 것을 생각하고, 경상도 감사 신 崔府, 전라도 감사 신 沈道源, 강원도 감사 신 趙從生에게 명하여 각기 그 도에서 판각하도록 하셨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文籍이 드물어서 학자들이 책을 널리 보지 못함을 병통으로 여겼다.宋나라 이래 여러 유학자들 가운데 經書를 輔翼한 학설을 낸 이가 무릇 120명인데, 모두 이 책에 일목요연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이번의 간행이 어찌 우리 동방 학자에게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전하께서 황제가 내리신 은혜를 공경히 받들어 성학의 진실된 마음을 밝히고, 이를 후학에게 널리 베풀어서 人心의 교화를 맑게 하셨으니 아! 지극하도다!

宣德 丁未(1427) 겨울 12월 甲寅 崇政大夫 右軍都總制府事 集賢殿大提學 知經筵春秋館事 兼成均大司成 世子貳師臣 卞季良은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삼가 발문을 쓴다.¹⁶⁾

서울대 규장각에는 이때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論語集註大全』이 소장되어 있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20卷9冊(全帙): 四周雙邊 匡郭: 24.0 × 16.5 cm, 有界, 10行 22字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3.0 × 21.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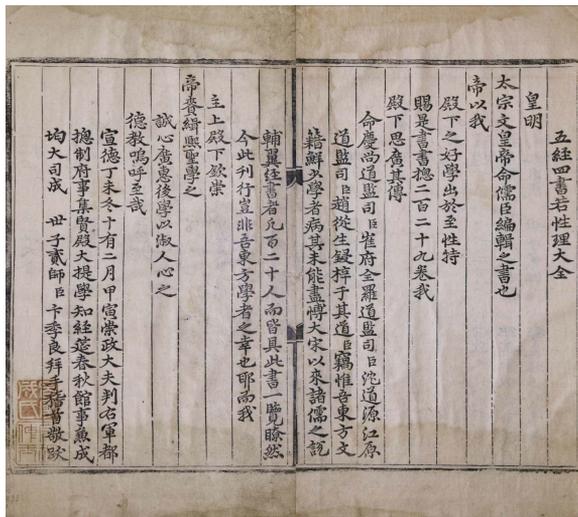
이 책은 매 책 首葉에 「經筵」(朱文方印), 「坡山淸隱」(朱文方印), 「聽松」(白文方印)의 印記가, 제3~9책의 卷尾에 「守琛仲玉」(朱文方印), 「昌寧成氏」(白文方印)의 印記가 각각 눌러져 있어, 이 책이 成守琛(1493~1564)의 舊藏本이며, 경연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卞季良, 「四書五經性理大全」, 『五經四書』若『性理大全』, 皇明太宗文皇帝命儒臣編輯之書也. 帝以我殿下之好學, 出於至誠 特賜是書, 書總二百二十九卷. 我殿下思廣其傳, 命慶尙道監司臣崔府·全羅道監司臣沈道源·江原道監司臣趙從生, 鈔梓于其道. 臣竊惟吾東方文籍鮮少, 學者病其未能盡博. 大宋以來諸儒之說輔翼經書者, 凡百二十人, 而皆具此書, 一覽瞭然. 今此刊行, 豈非吾東方學者之幸也耶? 而我主上殿下, 欽崇帝寶, 緝熙聖學之誠心, 廣惠後學, 以淑人心之德教, 嗚乎至哉! 宣德丁未冬十有二月甲寅崇政大夫右軍都總制府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世子貳師臣卞季良拜手稽首謹跋.

이 발문은 『春亭先生文集』 卷12 銘○跋에도 「四書五經性理大全跋」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圖 2> 서울대奎章閣藏『論語集註大全』第1冊 首葉 (古貴 1333-11). 아래부터 「經筵」, 「坡山淸隱」, 「聽松」의 印記가 눌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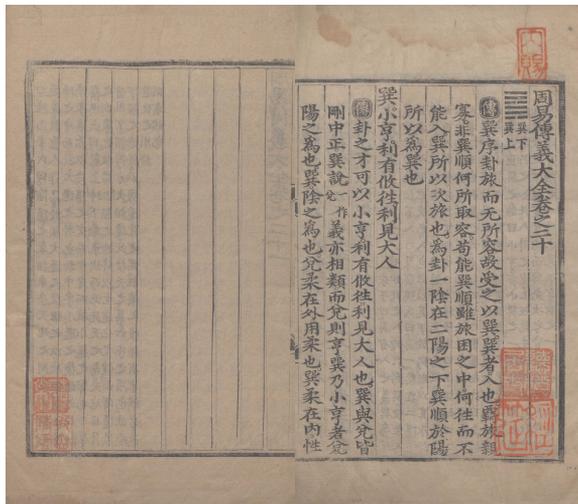


<圖 3> 서울대奎章閣藏『論語集註大全』第9冊 수록 卍季良의 「五經四書若性理大全」, 「守琛仲玉」, 「昌寧成氏」의 印記가 눌러져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위의 서울대 규장각 소장 『論語集說大全』과 같은 때 같은 인물에게 내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明版覆刻本 『周易傳義大全』 零本 1책(권20-21)이 소장되어 있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零本 2卷1冊: 四周雙邊 半郭 24.7 × 16.5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5.2 × 22.0 cm

이 책에도 마찬가지로 首葉 右下方框內에 「經筵」(朱文方印), 「聽松居士」(白文方印), 框外右上方에 「內賜」(朱文長方印)의 印記가 눌러져 있고, 卷尾 左下方框內에 「坡山淸隱」(朱文方印), 「聽松」(白文方印)의 印記가 각각 눌러져 있어, 이 책 역시 成守樑의 구장본이자 경연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圖 4> 國立中央圖書館 藏 『周易傳義大全』 卷20-21(一山貴1231-23). 「經筵」, 「聽松居士」, 「內賜」, 「坡山淸隱」, 「聽松」의 印記가 눌러져 있다.

그런데 이 '3.7×1.9cm' 朱文長方印의 「內賜」 印記는 세종조의 內賜本 일부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世宗實錄』에 따르면 세종 11년(1429) 집현전에

서 帙를 올려, 경연에 소장한 서책은 標記가 없을 수 없으므로, 「經筵」 두 자로 圖書를 만들어 매 권마다 이를 찍고, 「內賜」 두 자로 圖書를 만들어 만약 下賜하시는 책이 있으면 이 圖書를 찍어서 하사하도록 청하여, 세종의 윤허를 얻었다.¹⁷⁾ 이 「內賜」印은 집현전의 이 건의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래되지 않아 폐지된 듯하다. 「내사」의 인기를 가진 서적은 이 『주역전대전』 이외에 1425년(세종 7)의 『莊子虜齋口義』, 1429년(세종 11)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등 3종이 알려져 있다.¹⁸⁾

이후 세종 17년(1435)에는 갑인자로 찍은 『詩傳大全』을 宗室과 정부·육조의 당상관과 문신 2품 이상과 여섯 승지에게 내려주었다.¹⁹⁾ 세조 때는 을해자로 『사서오경대전』을 再刊하고 이후 을해자 印本을 저본으로 整版한 목판본도 나왔다.²⁰⁾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에 이 『서전대전』의 整版本 零本이 전한다(零本 1책: 晚松 A2 A1W, 零本 6책: 晚松 A2 A1X).

세종은 주희의 註解와 주희 이후 유학자들의 여러 설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이 『사서오경대전』·『성리대전』 등 영락제 칙찬 대전본의 주해 방식에 공감하여, 주요 한문고전에 대한 종합적 주해서의 편찬을 기획하였다. 세종은 특히 한문고전의 詳註本을 중시하여, 즉위 후 여러 경로로 고전주해서의 善本을 구하여 이를 활자로 간행하거나 복각하였으며, 이들 한문고전에 대한 研鑽의 결과물로서 여러 纂註本을 새롭게 편찬·간행하였다.

17) 『世宗實錄』卷43, 世宗 11年 3月 26日(1429, 宣德4). “○集賢殿啓: 經筵所藏書冊, 不可無標記 請以經筵二字作圖書, 每卷着標, 又以內賜二字作圖書, 如有賜者, 着標以賜, 從之.”

18) 이재준, 「朝鮮時代 內賜印의 類型 研究」, 『書誌學研究』第68輯, 書誌學會, 2016.

19) 『世宗實錄』卷68, 世宗 17年 6月 1日(1435, 宣德10). “賜『詩大全』于宗室與政府六曹堂上及文臣二品以上六承旨.”

20)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3, 태학사, 2012, pp.568-570.

Ⅲ. 춘추류 서적의 수입과 간행

1. 集賢殿 受命編 『春秋經傳集解』

세종은 재위 22년이던 1440년 집현전에 명하여 기존의 중국본 『春秋經傳集解』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책을 만들 것을 명한다. 세종은 杜預 『春秋經傳集解』는 정밀하나 혹 지나치게 간명하고, 林堯叟와 朱申의 『句解』는 자세하나 지나치게 번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杜預本을 위주로 하여, 林堯叟와 朱申의 註解에서 긴요한 내용만을 뽑아 ‘附註’의 형태로 逐節하여 붙이고, 陸德明의 『經典釋文』과 林堯叟와 朱申의 翻音을 취하여 ‘音訓’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이도록 하였다. 또한 책의 전체적인 체례는 『春秋集傳大全』, 林堯叟本과 朱申本 등을 참조하여 세종 자신이 정하였다. 따라서 세종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춘추경전집해』는 『資治通鑑思政殿訓義』, 『通鑑綱目思政殿訓義』 등의 예와 같이 기존의 중국본 『춘추경전집해』과는 체례와 내용이 다른 새로운 주해서라고 할 수 있다.

『春秋經傳集解』의 杜預 서문에 이어서 발문 형식으로 실려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春秋左氏傳』의 註釋은 一家 뿐만이 아니다. 杜預의 『集解』은 정밀하나 혹 지나치게 간단하고, 林堯叟·朱申의 『句解』는 자세하나 자못 지나치게 번다하여, 반드시 서로 참고해야만 비로소 그 취지를 알 수 있다. 경신년 여름 5월 주상께서 集賢殿에 명하여, 數家의 설을 모아 하나의 책을 이루되 杜預의 『集解』를 위주로 하고 林堯叟·朱申의 『句解』는 번잡한 내용을 산삭하고 요점만을 취하여 특별히 附註 2자를 더하여 逐節 아래에 넣게 하셨다. 또 陸德明의 『經傳釋文』과 林堯叟·朱申의 翻音을 채택하여 ‘音訓’이라 하고 그 뒤에 부록하게 하셨다. 年 위의 經傳 두 글자는 모두 陰字를 사용한 것과 年에서 甲子를 쓰고 逐節하여 圈點을 더한 것은 실로 林堯叟·朱申의 범례를 따른 것이다. 12公의 年首와 列國의 紀年은 본디 林堯叟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大全에 의거하여 姓氏를 標識하지 않아 번거로움을 제거하였다. 무릇 이러한 規模는 모두 宸斷의 품의를 얻은 것이다. 이에 文辭가 환히 해석되고 節目이 분명하여, 考校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열람에 편하게 되니 실로 후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²¹⁾

그런데 세종이 이 발문에서 언급한 ‘刪繁撮要’와 ‘便於覽閱’은 『資治通鑑思政殿訓義』, 『通鑑綱目思政殿訓義』, 『纂註分類杜詩』 등 세종조에 편찬된 관찬 주해서의 편집 강령을 이루는 말이다.

세종조의 纂註本 편찬은 『資治通鑑思政殿訓義』에서 시작되었다. 세종은 재위 16년인 1434년 6월 26일에 中樞院使 尹准, 禮曹左參判 權蹈, 集賢殿 副提學 倣循 등을 집현전으로 불러 『資治通鑑』을 考閱하게 하였다. 그리고 文義를 알기 어려운 구절은 『源委』, 『輯覽』, 『釋義』 등 여러 서적을 參究하여 그 해설을 逐節하여 붙이고, 『通鑑訓義』라고 명명하였다. 같은 해 7월 16일에는 『資治通鑑』을 老人(즉 태종)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大字(갑인자)를 주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세종 18년(1436) 2월 27일 초추갑인자로 간행한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문신들에게 頒賜하였다.²²⁾ 그런데 이때 安止가 작성한 「資治通鑑訓義序」는 세종조의 纂註本이 가지는 특징을 세종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상께서 경복궁 思政殿에 거둥하여 날마다 經筵에서 널리 儒臣을 맞아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강론하시되, 무릇 書·史에 대하여 열람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그 온족된 뜻을 연구하고 그 精微함을 다하였다. 하루는 예문관 대제학 尹准(1380~1436) 등에 명하기를 “우리나라는 서적이 드문데 역사책은 더욱 귀해서 배우는 자가 익히기 매우 어려우니 참으로 한스럽다. 경서는 근자에 명나라 황제께서 하사한 『性理大全』 약간책을 받았는데, 訓解가 자세하게 갖추어지고 句讀가 소상하여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니 더 의론할 것이 없다. 하지만 『資治通鑑』의 경우 전질이 원래 혼하지 않고 箋釋도 오묘함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本注는 너무도 간략하고 趙完璧 『資治通鑑源委』와 胡三省 『資治通鑑音注』는 너무도 번거롭고 王幼學 『資治通鑑綱目集覽』과 史炤 『資治通鑑釋文』은

21) 『春秋左氏傳』註釋非一家, 杜預『集解』精要而或失之簡, 林堯叟·朱申『句解』纖悉而頗傷於繁, 必須參考, 始會歸趣, 歲庚申夏五月上命集賢殿, 稟輯數家之說, 合成一書, 以杜本爲主, 林朱則刪繁撮要, 特加附註二字, 入于逐節之下, 又採陸德明『釋文』·林朱韻音, 名曰音訓, 以附其後, 若乃年上經傳兩字, 皆用陰字, 與夫年書甲子, 節加圈點, 實倣林朱之例. 至於十二公年首, 列國紀年, 本出林註, 今依大全, 不標姓氏, 以剗其煩, 凡此規模, 皆稟宸斷. 於是文辭曉析, 節目分明, 不費考校, 而便於覽閱, 誠有補於後學云.

22) 『世宗實錄』卷71, 世宗 18年 2月 27日(1436, 正統1).

잘못된 데가 있어,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병폐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 하나로 일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여러 사람의 訓詁를 모으고 모든 의론의 精화만을 가려서,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잘못된 곳을 깎아, 文義를 찾고 節次를 분별하여, 사건마다 挾註하여 열람하기에 편하게 하라.”고 하셨다. 23)

『성리대전』의 경우 訓解가 정비되어 있고 句讀가 상세하여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니 더 의론할 것이 없다. 하지만 『자치통감』의 경우는 全帙이 원래 혼하지 않은데 箋釋도 오묘함을 다하지 못하였다. 本注는 너무도 간략하고 趙完璧 『資治通鑑源委』·胡三省 『資治通鑑音注』는 너무 번거롭고 王幼學 『資治通鑑綱目集覽』·史紹 『資治通鑑釋文』은 오류가 있어,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병폐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 하나로 일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마땅히 諸家의 훈고를 모으고 衆論의 精華만을 가려서,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잘못된 곳을 깎아, 文義를 찾고 節次를 분별하여, 사건마다 挾註하여 열람하기에 편하게 하라는 것이다.

『춘추경전집해』에서 ‘刪繁撮要’과 ‘便於覽閱’이라고 한 언급이 安止의 서문에서는 ‘芟繁釐枉’와 ‘以便觀覽’이라는 말로 나온다. 『춘추경전집해』가 두예의 주석을 위주로 하고 다른 주석들을 선별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자치통감사정전훈의』는 胡三省의 音註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 주석들을 선별적으로 채용한 것이었다. 열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책의 체례를 요연하게 하고 夾註의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과 함께, 여러 주해서에서 필요한 주석만을 채택하여 종합한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였다. 24)

고려대 만송문고에는 세종 24년(1442)에 초주갑인자로 印行한 『춘추경전집해』가 전한다(晚松 貴290).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23) 安止, 『資治通鑑訓義序』, 『東文選』 卷94 序. “上御景福宮之思政殿 日開經筵 廣延儒臣 講論治道 無書不覽 無史不閱 皆有以究其蘊而極其精矣. 一日 命藝文館大提學尹淮等曰: “本國文籍罕有 史冊尤鮮 學者難於講習 誠可恨已. 經書則比蒙欽賜 『性理大全』若干策 訓條雖備 句讀詳明 開卷瞭然 無可議者 顧有 『資治通鑑』 全帙本不多有 其箋釋未盡其妙 本注過乎簡 源委 胡註 傷於繁 集覽 釋文 失之謬 皆未免有抵牾難合之病 不可不詳覈而一之也 宜集諸家之訓詁 摭衆論之精華 芟繁釐枉 尋其文義 辨其節次 隨事挾註 以便觀覽.”
- 24) 노요한, 『朝鮮初期 官撰 註解書의 文獻學的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第3章 『資治通鑑』 및 『資治通鑑綱目』 思政殿訓義의 編纂과 註解方式」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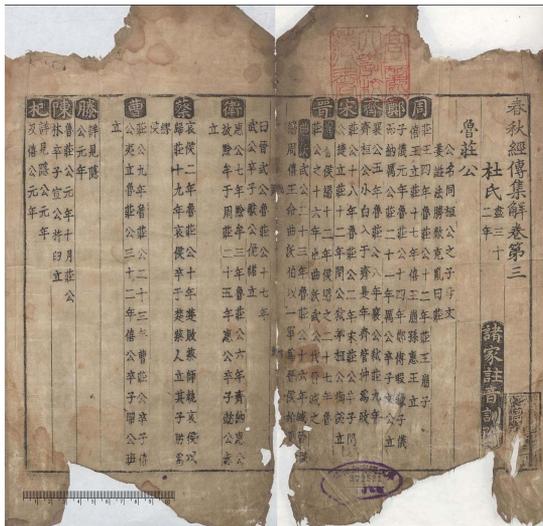
春秋經傳集解 / 集賢殿 受命編 / 活字本(初鑄甲寅字)

10冊(全30卷15冊): 四周雙邊 半郭 26.4 × 16.9 cm, 有界, 10行18字 小字雙行, 下
向黑魚尾; 37.8 × 21.7 cm

鑄字跋: 永樂元年(1403)春二月殿下謂左右曰 [...] 權近拜手稽首敬跋, 永樂二十年
(1422)冬十月甲午 [...] 卞季良拜手稽首敬跋, 宣德九年(1434)九月日 [...]
金鑄拜手稽首敬跋

刊記: 正統七年(1442)九月日印出

이 책은 권30의 卷尾에 權近의 癸未字 鑄字跋, 卞季良의 庚子字 鑄字跋, 金鑄의 甲寅字 鑄字跋과 함께 「正統七年(1442)九月日印出」의 刊記를 가지고 있어, 세종 24년인 1442년 9월에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每卷 首葉 右下方框內에 「龜鶴亭」(白文長方印)의 印記가 날인되어 있다. 龜鶴亭은 선조때 賀節使를 지낸 栢巖 金玠(1540-1616)이 경상도 榮州에 세운 정자를 말하는 듯하다.



<圖 5> 高麗大 晚松文庫 藏 初鑄甲寅字本『春秋經傳集解』卷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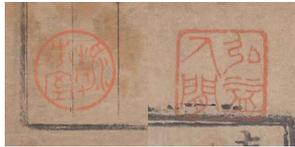


<圖 6> 高麗大 晚松文庫 藏 初鑄甲寅字本『春秋經傳集解』鑄字跋과 刊記

국립중앙도서관 一山文庫에도 같은 초주갑인자본 『춘추경전집해』가 소장되어 있다(一山貴1235-13). 그런데 이 일산문고본에는 『淸芬室書目』의 저자로 저명한 鶴山 李仁榮(1911~?)의 印記로 추정되는 「弘益人間」과 「淸芬室」의 2과가 각각 每冊首와 每冊尾에 날인되어 있다. 이인영은 1937년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史學科를 졸업하고, 1940년부터 1944년까지 延禧專門學校 講師를 지냈다. 해방 후에는 教育部 高等교육국장을 지냈고 1949년 이래 서울대 문리과대학과 延禧大 교수를 겸임하였다.²⁵⁾ 그는 1944년 자신의 소장본을 중심으로 著者, 刊行時期, 目錄學상의 특징을 漢文으로 서술한 『淸芬室書目』 9권 1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서목은 우리나라 현대 문헌학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書誌 저술이다.²⁶⁾

25) 김성준 편, 『鶴山李仁榮全集』(4책), 국학자료원, 1998. 11.

26) 朴文烈, 「淸芬室書目考(1)-특히 鶴山의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中心으로-」, 『圖書館研究』 제22권 제3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p.2~26 ; 朴문열, 「淸芬室書目考(2)-특히 鶴山의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中心으로-」, 『圖書館研究』 제22권 제4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p.3~48.



<圖 7> 國立中央圖書館 一山文庫 藏『春秋經傳集解』에 날인된 「弘益人間」(右)과 「清芬室」(左) 印記

그런데 그 주석이 자세하나 지나치게 번다하다고 언급한 林堯叟와 朱申의 『句解』는 각각 (宋)林堯叟 音註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와 (元)朱申 句解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를 가리킨다.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등에 零本이 남아 전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覆元版 (宋)林堯叟 音註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零本 1책 (卷55-59)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古貴1235-104).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卷55-59 / 林堯叟 音註 / 木板本(覆元版)
 5卷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14.9 × 10.4 cm, 有界, 12行22字 註雙行, 黑口, 上
 下下向黑魚尾(內向黑魚尾混入); 23.0 × 13.7 cm



<圖 8> 國立中央圖書館 藏 覆元版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卷55 首葉.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卷 62-70 零本 1책, 보물 제1159호)의 卷尾에는 1431년 金致明이 작성한 跋文이 남아 있어 간행의 유래를 알 수 있다.

『春秋』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니, 時事를 기록하는 것은 『左傳』이 아니면 할 수 없은즉 胡氏가 이른바 ‘좌씨를 살펴보면[按左氏]’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板刻이 없고, 혹 家藏本이 있는데 모두 중국의 書肆에서 온 것이니, 어찌 사람들이 얻어서 볼 수 있었겠는가? 『春秋』를 배울 때의 어려움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 庚戌년 여름 예문관 대제학 申槩 공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나도 佐幕에 참여하였다. 공이 하루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諸道에서 간행하지 않은 것은 오직 『左傳』뿐입니다. 우리 집에 한 본이 있으니 간행하여 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어떠합니까?” 나는 그 말을 좇아 찬성하였다. 閏12월 錦山에 移牒하여 다른 郡에 재료를 모으고 각공을 모집하도록 명하니, 각공들은 모두 승려들 중 일이 없는 자들이었다. 知郡 許安石 군이 실로 간행의 일을 주관하였다. 작업이 절반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해년 2월, 공이 大司憲으로 들어가고 判漢城 徐公이 선발되어 이어서 왔는데, 일에 대한 사려가 주밀하고 감독에 더욱 힘을 써서 5월에 일을 마쳤다. 아! 여러 군자들이 후학에 대하여 가히 힘씀이 수고롭고 혜택이 넓다고 하겠다. 나는 일의 전말을 남김 없이 여기에 쓴다. 宣德 6年 辛亥 5月 日 都事 金致明은 발문을 쓴다.²⁷⁾

곧, 세종 12년(1430)에 새로 부임한 전라도관찰사 申槩(1374~1446)가 家藏本을 간행할 것을 都事 金致明과 의논하여, 그해 윤12월 錦山에 관각할 것을 移牒하는 한편 다른 郡에는 재료를 모으고 각공을 모집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일을 실제로 주관한 사람은 知郡 許安石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판각이 완료되기 전 申槩가 대사헌으로 轉職하자, 후임 徐選(1367~1433)이 그

27) 『春秋』, 記事之書, 識時事, 非左傳不能也. 卽胡氏所謂安左氏者是已. 此書國無板刻, 或有家藏者, 皆中朝書肆來也. 安能人得而觀之哉? 學春秋之患, 恒在於斯. 歲庚戌夏藝文館大提學申公槩, 觀察全羅, 余參佐幕. 公一日語余曰: “今諸道未刊者, 唯左傳耳. 吾家有一本, 擬將刊印, 以惠學者, 何如?” 余從而贊之. 閏十二月移牒錦山, 令他郡鳩材募工, 工皆僧之無業者也. 知郡許君安石, 實幹其事, 功未半, 辛亥二月, 公入爲大司憲, 判漢城徐公選繼來, 慮事周密, 督之益力焉, 至五月告訖. 嗚呼! 數君子之於後學, 可謂力勤而惠廣矣. 余悉事之首末, 於是乎書. 宣德六年辛亥五月日 都事金致明跋.



<圖 9> 國立中央博物館 藏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수록 金致明 跋文.

일을 이어받아 그 해 5월에 완성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金致明은 발문에서 『春秋左氏傳』이 국내에 판각이 없고 혹은 중국의 書肆에서 들여온 家藏本 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閱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申槩가 자신의 家藏本을 내어 책을 간행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실은 1403년 조정에서 癸未字로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를 찍어낸 일이 있다. 이 재미자 印本 역시 단종 2년(1454) 6월 이곳 錦山에서 복각되었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단종 2년(1454)에 금산에서 복각한 覆癸未字本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의 零本이 소장되어 있다(「古貴1326-7」(李塏跋文 수록), 「一簣 古181.1-lm 2e」, 「가람 古181.1-lm2e-v.1」).²⁸⁾ 一簣本の 간략 서지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 (宋) 林堯叟 句解 / 癸未字 覆刻本
 4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0.3 × 10.4cm, 有界, 8行17字, 上下下向黑魚尾; 33.7
 × 18.8cm

28) 국립중앙도서관에도 同書가 소장되어 있다. 古貴123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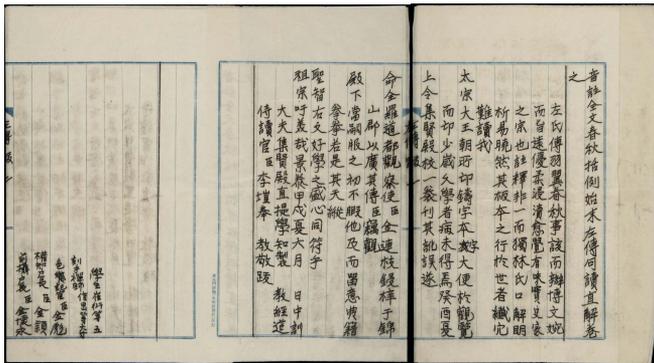


<圖 10> 서울대奎章閣一篋文庫藏 覆癸未字本 『音註全文春秋括始末左傳句讀直解』卷43

일사본 제4책의 卷尾에는 '東大門市場(金奩熙商店)印行'이라는 原稿紙에 朝鮮史編修官 稻葉岩吉 소장의 『音註全文春秋括始末左傳句讀直解』에서 발문, 출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李塏의 약력, 생육신 및 사육신에 대한 메모 등을 傳寫한 것이 첨부되어 있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

『左氏傳』은 『春秋』를 羽翼하는 것으로, 사건이 갖추어져 있고 변론이 해박하며, 문장은 아름답고 취지는 원대하여, 優柔하고 무뎠어 더욱 맛이 있음을 깨달으니, 실로 史家의 宗主이다. 註釋은 하나가 아니지만 오직 林氏의 口解가 명석하고 알기 쉽다. 하지만 그 판본으로 세상에 행하고 있는 것은 자잘하고 번잡해서 읽기 어렵다. 우리 태종대왕조 때 주조한 字本은 글자가 커서 보기에 편한데, 印本이 적고 세월이 오래되어 학자들이 얻지 못함을 병통으로 여겼다. 계유년 여름 주상께서 집현전에 명하여 1질을 교정하여 오류를 깎아내고, 마침내 臣 全羅道觀察 金連枝에게 명하여 錦山郡에서 새겨서 널리 전하도록 하셨다. 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다른 데 미칠 여가 없이 典籍에 뜻을 두시기를 이와 같이 拳拳히 하셨다.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예지와 文을 중시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誠心이 祖宗에 同符하셨으니, 아아 아름답도다! 景泰 갑술년(1454) 여름 6월 일, 中訓大夫 集賢殿直提學 知製教 經筵侍讀官 臣 李塏는 분부를 받들어 삼가 발문을 쓴다.²⁹⁾

『左氏傳』은 『春秋』의 羽翼으로서 史家의 宗이 되며, 이에 대한 주석은 많지만 林堯叟의 「句解」만큼 분명하고 알기 쉬운 것이 없다. 그런데 세간에서 읽히고 있는 판본은 글자가 작아서 읽기 어렵고 태종 때 大字로 印行한 鑄字本은 열람하기 편하나 印本이 적은 데다가 세월이 오래되어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단종은 재위 3년이던 1453년 여름에 집현전에 명하여 오류를 교정하고는 전라도 관찰사 金連枝에게 명하여 금산군에서 찍어내도록 하였다. 판각은 작업 1년만인 1454년 6월에 완성되었다.



<圖 11> 서울대奎章閣一簣文庫藏 覆癸未字本『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跋文

그런데 여기서 세간에서 읽히고 있는 판본이란 앞서 본 覆元版『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을 말한다. 재미자 印本은 발행 부수가 적었을 뿐더러, 지방에서의 복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는 성종연간에는 乙亥字로 印行되고 中宗-明宗年間에는 갑인자로도 印行되었다.

29) 『左氏傳』羽翼『春秋』，事該而辭詳，文婉而旨遠，優柔浸漬，愈覺有味，實史家之宗也。註釋非一而獨林氏口(句)解，明析易曉，然其板本之行於世者，繼兀難讀。我太宗大王朝所印鑄字本，字大便於觀覽，而印少歲久，學者病未得焉。癸酉夏上令集賢殿，校一捲刊其訛誤，遂命全羅道觀察使臣金連枝，鉞梓于錦山郡，以廣其傳。臣竊觀殿下當嗣服之初，不暇他及，而留意典籍，拳拳若是。其天縱聖智，右文好學之誠心，同符乎祖宗，吁美哉！景泰甲戌(1454)夏六月日，中訓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教經筵侍讀官 臣李壘奉教敬啟。

한편 (元)朱申 句解의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는 중종-명종연간에 갑인자로 인쇄한 것이 성암고서박물관(성암1-153)과 日本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別031-0001)에 전한다. 다만 이 책은 (明)劉端仁의 校正本으로, 元版을 저본으로 活印한 것은 아니다. 『中國古籍善本書目』은 朱申의 句解本으로서 元刻本 『增修訂正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 35권(存30卷), 明初刻本, 明刻本, 明嘉靖刻本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 35卷, 明萬曆10年 顧梧芳刻本, 明萬曆10年周日校刻本, 明萬曆13年周日校刻本(清丁丙跋) 등의 『春秋左傳詳節句解』 35卷, 明孫鑣批點 明末刻本 『重訂批點春秋左傳狐白句解』 35卷 등을 저록하고 있으나 劉端仁校正本은 보이지 않는다. 성암문고본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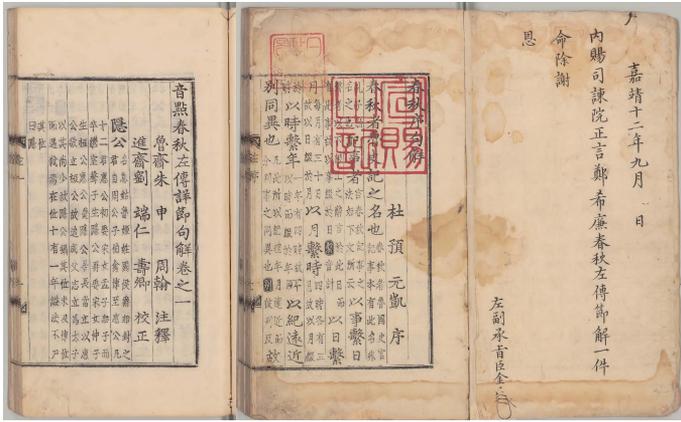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 卷4-20 / 朱申(元) 句解 ; 劉端仁(明) 校正 / 活字本(初鑄甲寅字)
17卷8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3.7 × 13.9 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內向3葉花
紋魚尾; 33.7 x 19.0 cm

內閣文庫 藏本은 嘉靖 12년(1533) 9월 당시 사간원 正言 鄭希廉에게 內賜된 內賜本 13책(卷1-3 1冊缺)이다. 정희렴은 중종 28년(1533) 9월 14일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다가³⁰⁾ 9월 16일에 체직되었으므로,³¹⁾ 내사의 날짜는 9월 14일 혹은 15일이 된다.

한편, 集賢殿編 『春秋經傳集解』의 저본이 되었던 唐本 『春秋經傳集解』은 傳存本이 확인되지 않아 그 저본을 알기 어렵다. 그와 별도로 고려대 만송 문고에는 明刻本 2종(육당A5B2 30卷16冊, 六堂A5B2A 缺本28冊[全30卷30冊])이 전한다. 30권본은 萬曆 15年(1587) 劉懷恕의 서문을 지닌 간본으로,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30) 『中宗實錄』 卷76, 中宗28年 9月 14日(1533年 嘉靖12). “○癸丑以權輓爲司憲府大司憲, 朴祐爲承政院左副承旨, 丁玉亨爲司諫院大司諫, 朴洪麟爲執義, 李任爲司諫, 成倫·河繼先爲掌令, 金希說爲弘文館應教, 蔡無斁爲副應教, 慎居寬·韓淑爲持平, 黃琦爲獻納, 尹豐亨·金光軫爲校理, 金齊爲副校理, 洪暹·鄭希廉爲正言.”

31) 『中宗實錄』 卷76, 中宗28年 9月 16日(1533, 嘉靖12). “○憲府啓金洞事, 又啓: ‘正言鄭希廉, 有所失, 不合言官, 請遞.’ 答曰: ‘鄭希廉, 依允, 金洞, 不允.’”



<圖 12> 內閣文庫藏『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內賜記(右)와 卷首(左)

春秋經傳集解 / (晉)杜預 撰; (明)穆文熙 編纂; (明)石星 校閱; (明)劉懷恕 參閱;
(明)沈權同閱 / 木板本(明板)

30卷16册: 地圖, 四周雙邊 半郭 24.0 × 13.9 cm, 上下兩段, 有界, 9行20字 小字
雙行, 白口, 上黑魚尾, 聲点·口讀点刻; 31.0 × 17.8 cm.

序: 萬曆15(1587)年仲秋之吉河南道御史東明劉懷恕頓首書

2. 胡安國 傳『春秋胡氏傳』의 수입과 간행

조선 초기에는 『春秋左氏傳』과 함께 胡安國 傳의 『춘추호씨전』이 조정의 중외에서 閱讀되었다. 건국 초 조선 조정은 왕도정치의 지침서로서 眞德秀의 『大學衍義』를 중시하여, 세종은 세자 시절부터 『대학연의』를 강하였으며, 즉위 후의 첫 경연교재로 『대학연의』를 선정하고, 이듬해의 경연에서도 다시 이 『대학연의』를 강하는 등 왕도정치의 이해에 박차를 가하였다. 즉위년인 1418년 10월 7일 경연에서 진덕수 『대학연의』의 강을 시작하여 이듬해 3월 27일에 마치고, 3월 30일 다시 『대학연의』의 강을 시작하여 7월 9일에 강을 마친 세종은, 경연의 두 번째 교재로 『춘추호씨전』을 선정하여 7월 13일 강을 시작하였다.³²⁾ 강을 마쳤다는 기사는 『실록』

에 보이지 않으나 이듬해 윤1月 1日 『통감강목』의 강을 시작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므로,³²⁾ 『춘추호씨전』의 강은 그해 연말 무렵에 마쳤던 듯하다. 세종은 재위 7년이던 1425년 5월에도 『춘추호씨전』을 강하여³⁴⁾ 그해 12월에 강을 마쳤다.³⁵⁾

조선에서 『춘추호씨전』이 존송된 것은 우선 중국의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원나라 仁宗 皇慶 2년(1313) 과거 程式의 조칙을 내렸는데, 과목의 규정에서 “『춘추』는 三傳과 胡氏의 「傳」을 허락한다.”³⁶⁾고 하였다. 과거의 定本の 하나로서 삼전과 병렬됨으로써 『호씨전』은 문인학사들 사이에서 삼전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삼전에 호씨전을 더하여 四傳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곧 吳澄은 俞阜의 『春秋集傳釋義大成』의 서문에서 이 책이 “經文 뒤에 三傳과 胡氏의 『傳』을 갖추어 실으니, 오늘날 숭상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경문 아래의 주석을 완상하면 四傳의 시비는 변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아질 것이니, 전문하여 통달한 자라고 하겠다.”³⁷⁾라고 하였다.³⁸⁾

『춘추호씨전』에 대한 「사고제요」의 평가는 명의 춘추학이 가장 폐단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호씨전』을 지목하는 등 대개 부정적이다. 明初에 과거의 제도를 정할 때 대체로 元의 옛 방식을 계승하여 程朱를 宗法으로 삼았는데, 程頤의 『춘추전』은 겨우 2권으로 이루어져 闕略이 너무 심했고, 주희 역시 완성된 책이 없었다. 호안국의 학문이 정이에게서 나오고, 張洽의 학문이 주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춘추』는 두 사람의 책으로 정하여 채용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張洽의 『춘추전』은 점차 통행되지 않아 마침내 호안국의 책만을 獨用하게 되었으며, 점차 經을 폐기하여 읽지 않고 오

32) 『世宗實錄』 卷4, 世宗1年 7月 13日(1419, 永樂17). “○御經筵, 始講『春秋胡氏傳』.”
 33) 『世宗實錄』 卷7, 世宗2年 閏1月 1日(1420, 永樂18). “○經筵始講『綱目通鑑』.”
 34) 『世宗實錄』 卷28, 世宗7年 5月 17日(1425, 洪熙1). “○丙戌御經筵, 始講『春秋胡氏傳』.”
 35) 『世宗實錄』 卷30, 世宗7年 12月 11日(1425, 洪熙1). “○輪對, 御經筵, 講『春秋胡氏傳』畢.”
 36) 『元史』 권81 「選舉志一」: 『春秋』許用三傳及胡氏傳
 37) 經後備載三傳·胡氏傳, 以今日所尙也, 玩經下之釋, 則四傳之是非, 不待辨而自明, 可謂專門而通者矣.
 38) 林鶴政, 『明代春秋學研究』, 致知學術出版, 2014. 「第三章 科舉與經學: 胡『傳』의 獨尊與『左傳』의 復興」 참조.

직 호안국의 『춘추전』만을 위주로 하여, 당시 이른바 經義라고 하는 것은 실은 호안국 『춘추전』의 의리였다는 것이다.³⁹⁾ 하지만 호안국 스스로는 자신의 이 저술에 대해 “지금 傳을 지으면서 사건은 『좌전』을 살피고, 의리는 『公羊傳』과 『穀梁傳』의 정수를 채택하고 大綱은 『맹자』에 근본하고, 微詞는 대부분 程子の 설을 증거로 하였다”⁴⁰⁾고 하였다. 곧 『호씨전』은 『춘추』 三傳을 종합한 위에 성리학의 이론으로 『춘추』의 微言大義를 풀이한, 새로운 형태의 『춘추』 주해서라고 할 수 있다.⁴¹⁾

조선에서 『춘추호씨전』이 존승된 것은 이러한 중국에서의 분위기와 더불어 주희가 이 책을 高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주희는 『주자어류』에서 “호안국의 『춘추전』은 견강부회한 곳이 있지만, 의문에는 開合의 정신이 있으니, 또한 천고의 定評이다.”⁴²⁾라고 하였다. 또한 『춘추대전』이 호안국의 『傳』을 위주로 하였다는 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듯하다.

고려대 만송문고(만송 貴195C), 화산문고(화산 貴195E 6), 신암문고(신암 貴195F 5)에는 元版 『春秋胡氏傳』을 傳寫하여 木版으로 찍은 책이 전한다. 모두 林堯叟의 『音註括例始末』을 附錄한 것으로, 만송문고본은 初刻이고 화산문고본과 신암문고본은 後刷로 보인다. 실은 화산문고본과 신암문고본은 원래 1책이던 것을 분책한 것이다. 신암문고본에는 본문에 앞서 序文의 형식으로 이 1책을 소장하게 된 緣起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문의 작성일은 「檀紀4293年(1960) 12月 日」이며, 서문의 작성자는 薪菴 金約瑟(1913-1971)이다.

39) 明初定科舉之制, 大略承元舊式, 宗法程朱, 而程子『春秋傳』僅成二卷, 闕略太甚, 朱子亦無成書. 以安國之學出程氏, 張洽之學出朱氏, 故『春秋』定用二家. 蓋重其淵源, 不必定以其書也. 後洽『傳』漸不行用, 遂獨用安國書, 漸乃棄經不讀, 惟以安國之『傳』爲主, 當時所謂經義者, 實安國之『傳』義而已. 故有明一代『春秋』之學爲最弊.

40) 『春秋胡氏傳』 「敘傳授: 今所傳, 事按『左氏』, 義採『公羊』·『穀梁』之精者, 大綱本『孟子』, 而微詞多以程氏之說爲證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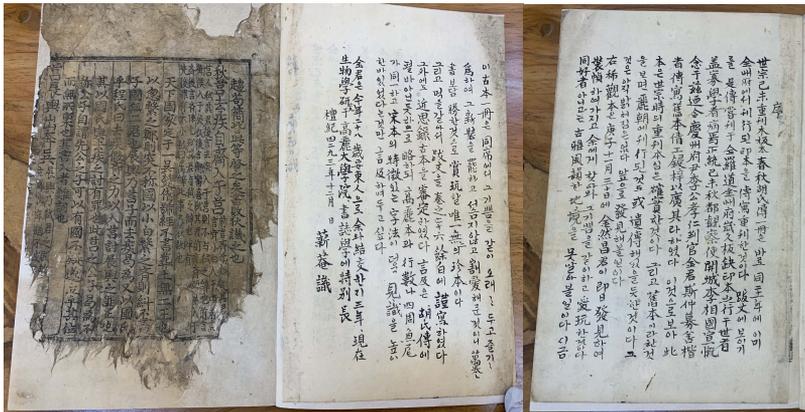
41) 김동민, 「『春秋』 三傳과의 비교로 본 胡安國 『春秋』 해석의 특징- 春秋 隱公조목의 쟁점을 중심으로 -, 『陽明學』 제37호, 한국양명학회, 2014. 참조.

42) 胡氏『春秋傳』有牽強處, 然議論有開合精神, 亦千古之定評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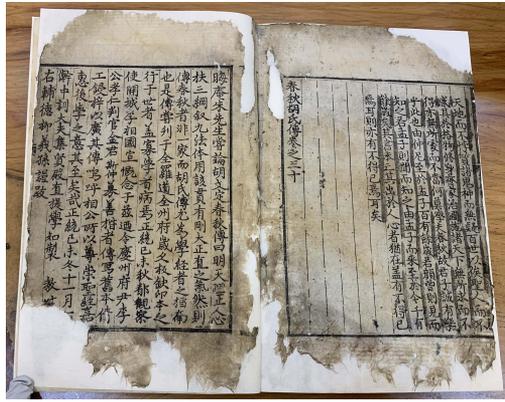
[...] 庚子(1960)十一月三十日에 金然昌 君이 卽日에 發見하여 裝幀하여가지고 余에게 찾아와 그 기쁨을 같이 하고 愛玩한 것이다. 同好者 아니고는 古雅風韻한 地境을 못 알아볼 일이다. 지금 이 古本 日冊은 同席에서 그 기쁨을 같이 오래오래 두고 즐기기 爲하여 그 新裝을 罷하고 서슴지 않고 割愛해준 것이니 萬卷之書보담 勝한 것으로 賞玩할 唯一無二의 珍本이다. [...]

곧 金然昌은 이 책을 발견하자마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當日로 分冊하고 장정을 새로 하여 金約瑟에게 증정하였다는 것이다. 김연창의 구장서였던 절반은 현재는 화산문고에 소장되어 있어, 이후 李聖儀에게 양도된 듯하다. 華山 李聖儀는 김약슬과 함께 『羅麗藝文志』를 엮은 바 있다. 신암문고본의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春秋胡氏傳(附林堯叟音註括例始末) / (宋)胡安國 傳; 林堯叟(宋) 音註 / 木板本(後刷本)
 零本1冊(卷25): 四周雙邊 半郭 19.5 × 15.1 cm, 有界, 12行21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5 × 19.8 cm.



<圖 13> 高麗大 薪菴文庫藏 『春秋胡氏傳』(薪菴 貴195F 5) 舊藏者 序



<圖 14> 高麗大 華山文庫藏 『春秋胡氏傳』(華山 貴195E 6) 卷尾所收 柳義孫 跋文

원래 김연창의 구장서였던 화산문고본의 卷尾에는 1439년 11월 하순 작성의 柳義孫 발문이 있어 간행의 경위를 말해준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

晦庵 주 선생(주희)은 일찍이 호안국의 『호씨전』을 평하여 “天理를 밝히고, 人心을 바르게 하고, 三綱을 扶持하고, 九法을 펼친다. 體와 用을 모두 관통하여 剛大하고 正直한 氣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춘추』에 주해를 단 사람은 一家가 아니지만 「胡氏傳」은 경학을 배우는 학자들에게 더욱 指南이 된다. 이 「호씨전」은 이전에 전라도 全州府에서 刊行한 적이 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板本이 缺落되어, 世間에 行하고 있는 印本이 모두 적어 學者들이 병통으로 여겼다. 正統 4년(1439) 가을 경상도 관찰사 李宣이 이에 慷慨하여 慶州府尹 李孝仁과 判官 金斯仲에게 명하여 楷書를 잘 쓰는 사람을 모집하여 舊本을 傳寫하고 이를 木版으로 간행하여 널리 전하도록 하였다. 아! 상공이 聖經을 존송하고 후학에게 혜택을 주려는 뜻이 지극하도다! 正統 己未 겨울 11월 下澣, 中訓大夫 集賢殿直提學 知製教 世子右輔德 柳義孫은 삼가 발문을 쓴다.⁴³⁾

43) 晦庵朱先生, 嘗論胡文定春秋傳曰: “明天理, 正人心, 扶三綱, 敘九法, 體用該貫, 有剛大正直之氣, 然則傳春秋者非一家, 而胡氏傳尤爲學經者之指南也, 是傳當刊于全羅道全州府, 歲久板缺, 印本之行于世者皆寡, 學者病焉, 正統己未秋, 都觀察使期城李相國直, 慨念于茲, 迺令慶州府尹李公孝仁, 判官金斯仲, 募善楷者, 傳寫舊本, 倩工鑄梓, 以廣其傳, 嗚呼! 相公所以尊崇聖經, 嘉惠後學之意, 其至矣哉! 正統己未冬十一月口(下澣), 中訓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教口口(世子)右輔德柳義孫謹跋.

만송문고본 『春秋胡氏傳』은 인쇄상태와 紙質로 보아 1439년의 初刻本인 듯하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지는 고문서를 사용하여 뒷표지 안쪽에 「弘治十六年(1503)八月初 日守節度使具[具銓]」의 목필이 있으나, 이는 改裝의 시기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春秋胡氏傳(附林堯叟音註括例始末) / (宋)胡安國 傳; (宋)林堯叟 音註 / 木板本
零本1冊: 四周雙邊 半郭 20.0 × 15.0 cm, 有界, 12行21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內
向黑魚尾; 30.7 × 19.0 cm.

表紙古文書: 弘治十六年(1503)八月初 日守節度使具[具銓]



<圖 15> 高麗大 晚松文庫藏 『春秋胡氏傳』(晚松 貴195C) 卷16 1-a(右), 1-b·2-a(左)

한편, 1439년 간행의 이 『춘추호씨전』은 유의손이 발문에서 언급하였 듯이 舊本, 즉 전라도 全州府에서 간행되었던 것을 저본으로 하여 楷書를 잘 쓰는 사람들이 傳寫한 것을 목판에 세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 舊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려대 화산문고에는 고려말-조선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추 호씨전』 零本 1책이 소장되어 있다(화산 貴195H 3).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유의손이 말한 구분이란 이 화산문고본일 가능성이 크다.

이 고판본은 界線이 없는 등 세종조 때의 간본과 판식은 다르지만, 林堯叟 音註括例始末을 附錄하고 있어 내용 상 같은 구성을 지니고 있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春秋胡氏傳(附林堯叟音註括例始末) / 胡安國(宋) 傳 林堯叟(宋) 音註 / 木板本(翻刻)
零本1冊 : 四周單邊 半郭 19.3 × 12.0 cm, 無界, 15行18字, 上下細黑口, 內向黑魚尾; 25.3 × 15.8 cm.



<圖 16> 高麗大 華山文庫藏 『春秋胡氏傳』(華山 貴195H 3) 卷13 1-a(右), 1-b·2-a(左)

한편, 성종연간에는 을해자로 『춘추호씨전』을 印行하였다. 이 세종조 때의 간본을 저본으로 한 듯하며, 『청분실서목』에도 같은 책이 저록되어 있다. 고려대 화산문고 藏本을 예로 들어 간략 서지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화산 貴195G 1).

春秋胡氏傳/ 胡安國(宋) 傳 林堯叟(宋) 音註 / 活字本(乙亥字)
30卷4冊 : 四周雙邊 半郭 21.7 × 14.7 cm, 有界, 9行17字 小字雙行, 內向黑魚尾 ; 27.8 × 18.4 cm.



<圖 17> 高麗大 華山文庫藏 乙亥字本 『春秋胡氏傳』 卷1 1-a(右), 1-b·2-a(左)

3. (宋)林堯叟 註 『春秋經左氏傳句解』

『春秋經左氏傳句解』 역시 『춘추좌씨전』에 (宋)林堯叟의 句讀와 直解를 더한 것이다. 앞서 본 林堯叟 音註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와 서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성암고서박물관(성암1-191~193)과 海印寺에 零本이 전한다.44) 『中國古籍善本書目』에는 同書名으로 明刻本 1種을 기록하고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의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春秋經左氏傳句解. 卷10-19, 40-49, 60-70 / 林堯叟(宋) 註 / 木板本(覆元版)
 31卷3冊(缺舛):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6.9 × 12.3 cm, 有界, 14行24字 註雙行,
 上下小黑口, 下向黑魚尾; 27.0 × 15.7 cm
 跋: 歲辛亥(1431)監司曹相致都事安君質旁求善本得參議朴公賁家藏馮子董事自仲
 秋至仲冬而告成 [...] 知郡事朱邵敬跋
 刊記: 宣德六年(1431)十一月日清道開板

이 책은 卷尾에 “宣德六年十一月日清道開板”의 刊記를 지녀, 세종 13년(1431) 11월에 淸道에서 開板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朱邵의 跋文에 의하면 이 책은 慶尙道觀察 鄒陟使 曹致와 都事 安質이 參議 朴賁이 家藏하던 『좌씨전』의 선본을

44) 해인사본은 보물 제1208-2호.

구하여, 淸道知郡事 朱邵의 책임 하에 淸道에서 간행한 책이다. 1431년(세종 13) 8월에 판각을 시작하여 3개월 후인 同年 11월에 완료하였다.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을 錦山에서 간행하면서 작성한 金致明의 발문에서 『춘추좌씨전』이 국내에 판각이 없고 혹은 중국의 書肆에서 들여온 家藏本 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閱讀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春秋經左氏傳句解』의 跋文을 쓴 曹致 역시 經史의 모든 서적이 구비되었으나 유독 『좌씨전』만은 간행되지 않아 『春秋』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책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朱邵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오직 우리 東方은 文教가 크게 성행하여 經史가 모두 갖추어졌으나, 유독 『左氏傳』만은 간행을 보지 못하여 『春秋』를 공부하는 자들이 참고할 것이 없었다. 신해년 監司 曹致와 都事 安質이 두루 善本을 구하여, 參議 朴賁 공의 家藏本을 얻어서는 나에게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仲秋부터 시작하여 仲冬에 이르러 완성을 보았다. 아! 曹相이 文教를 찬송하고 承學을 연 것이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知郡事 朱邵는 삼가 발문을 쓴다.⁴⁵⁾



<圖 18> 海印寺 藏 『春秋經左氏傳句解』 卷60 首葉(右)과 卷70 卷尾의 朱邵跋文·간행 참가자 列列銜(左)

45) 惟我東方, 文教大行, 經史悉備, 獨左氏傳, 未見刊行, 治春秋者, 無以爲按. 歲辛亥監司曹相致, 都事安君質, 旁求善本, 得參議朴公賁家藏, 囑予董事. 自仲秋至仲冬而告成. 吁! 曹相之贊文教, 開承學, 豈不偉歟! 知郡事朱邵敬跋. 宣德六年十一月日, 淸道開板.

4. 李廉輯『春秋諸傳會通』

이 책은 元 李廉『春秋』의 여러 註解書を 종합하여 편찬한 것을 태종 3년(1403)에 晋山에서 목판으로 중간한 것이다.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零本 1冊(권1-6)이 유일하게 전한다(한貴古朝07-18).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春秋諸傳會通 / 李廉輯 / 木版本(覆元版)

6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5 × 13.1 cm, 有界, 12行22字 註雙行, 黑口, 下向黑魚尾; 27.5 × 16.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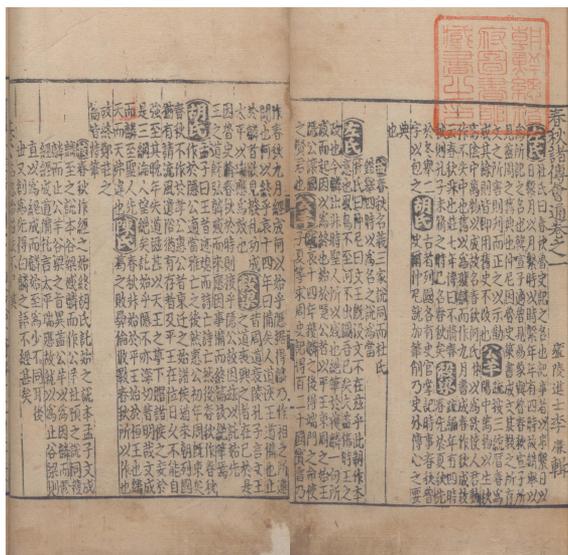
刊記: 永樂水羊(1403)仲秋晋山重刊

序: 至正九年己丑(1349) [...] 李廉

이 책은 卷首와 卷末의 일부는 유실되고 없다. 卷首에 李廉이 至正 9년(1349)에 쓴 서문이 나오고, 이어서 「永樂水羊仲秋晋山重刊」의 牌記가 나온다. 水는 癸, 羊은 未에 해당하므로 이 책은 태종 3년(1403) 仲秋에 晋山에서 重刊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杜預 「左傳序」, 何休 「公羊傳序」, 范寧 「穀梁傳序」, 「程子序」, 胡安國 「胡氏傳序」·「胡氏進春秋傳表」, 陳傅良 「陳氏後傳序略」가 나오고, 이어서 李廉 「讀春秋綱領」·「春秋諸傳會通凡例」가 나온다. 본문에서는 「左氏」, 「公羊」, 「胡氏」, 「穀梁」, 「陳氏」, 「張氏」의 引用 書籍을 墨蓋字로 표시하고 주석 내용을 그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기입하였다. 「陳氏」는 (宋)陳傅良의 『春秋後傳』, 「張氏」는 (宋)張洽(1160~1237)의 『春秋集傳』을 가리킨다. 그밖에 李廉의 按說이 곳곳에 부기되어 있다.



<圖 19> 國立中央圖書館藏 李廉 輯『春秋諸傳會通』李廉序(右)斗 牌記(左)



<圖 20> 國立中央圖書館藏 李廉 輯『春秋諸傳會通』卷1 首葉

IV. 기타 경부 서적의 수입과 간행

1. (元)董眞卿 編 『周易會通』

국립중앙박물관에는 「至元二年丙子(1265)/翠巖精舍新刊」의 牌記를 가진 覆元刊本 董眞卿編 『周易會通』(한貴古朝03-28) 零本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사고제요」에 따르면 이 책의 편찬자 董眞卿은 字가 季眞이고 鄆陽人으로 胡一桂에게 수학하였다. 이 책은 실은 호일계의 『易本義附錄纂疏』를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의 설을 두루 정리한 것으로, 初名은 『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이다.⁴⁶⁾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⁴⁷⁾

周易會通 / 董眞卿 編集 / 木板本(元版覆刻)

零本1冊(92張): 圖, 四周雙邊 半郭 18.3 × 12.6 cm, 有界, 11行19字 註雙行, 黑口,
下向黑魚尾; 23.3 × 15.6 cm

刊記: 至元二年丙子(1265)翠巖精舍新刊

劉君佐의 翠巖精舍는 『書林清話』에 의하면 원나라 延祐年間부터 명나라 成化年間까지 존속한 私家書坊으로, 『周易傳義』(1314), 胡一桂 『朱子詩集傳附錄纂疏』(1327), 王應麟 『三家詩稿』, 『新編古賦解題前集』(1329), 董鼎 『尚書輯錄纂注』(1354), 宋나라 郎暉注 『陸宣公奏議』, 『大廣益會玉篇』(1356), 宋나라 陳元靚 『纂圖新增群書類要事林廣記前集』·『後集』·『續集』·『別集』·『新集』·『外集』(1418) 등을 출판하였다.⁴⁸⁾

46) 元董眞卿撰 眞卿字季眞, 鄆陽人. 嘗受學於胡一桂. 斯編真本一桂之『纂疏』, 而廣及諸家. 初名曰『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

47) 충남대 도서관에도 同本으로 보이는 책이 소장되어 있다. 청구기호 古書 經易類 92.

48) 葉德輝, 『書林清話』卷4 「元私宅家塾刻書」.



<圖 21> 國立中央圖書館 藏『周易會通』首卷「總目」(右)과 牌記(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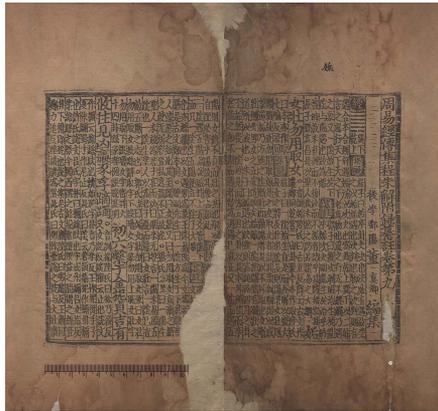
『周易會通總目』에 따르면 이 책은 1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首卷에 해당한다. 이 首卷에는 「周易會通總目」, 「易程子傳序」, 「凡例」, 「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序」, 「凡例」, 「引用書目」, 「周易經傳歷代因革」, 「周易古經」, 「易程子傳序」, 「易程子序」, 「古易朱子後序」, 「學啓蒙序」, 「程子說易綱領」, 「朱子說易綱領」, 「朱子易圖附錄纂註」, 「卦序圖」, 「卦互體圖」가 실려 있다.

「사고제요」는 이 책의 서명을 '會通'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곧, 程頤의 『易傳』과 주희의 『本義』는 채택한 판본이 달라 책의 次第가 같지 않으며, 혹자는 義理를 위주로 하고 혹자는 象占을 위주로 하여 本旨 역시 같지 않다. 여기에 先儒의 여러 易說 또한 각자 다른 견해로 각각 一義를 闡明하고 있다. 董眞卿은 여러 학자들의 易說이 비록 길은 다르지만 그 귀착점은 같다고 여겨, 여러 설을 두루 수집하여 하나의 설만을 위주로 하지 않고, 象數와 義理의 二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하였다.⁴⁹⁾

한편 고려대 도서관에는 이 책의 初名을 지닌 覆元版 『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 卷9-10(華山貴175 5) 零本 1책이 소장되어 있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 / 董眞卿 編輯 / 木板本(覆元版)

零本1冊(卷9-10): 四周雙邊 半郭 18.3 × 12.3 cm, 有界, 11行18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下向黑魚尾; 31.4 × 16.7 cm.



<圖 22> 高麗大 華山文庫藏 『周易經傳集程朱解附錄纂註』 卷9 首葉.

2. (元)吳澄 撰 『易纂言』

세조는 朱熹 『易學啓蒙』을 대군시절부터 탐독하여,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1458년(세조 4) 자신의 註解를 붙인 『易學啓蒙要解』를 戊寅字로 간행하였다(1458年 7月 崔恒 後序). 이때 저본이 된 것은

49) 其後定名‘會通’者, 則以程『傳』用王弼本, 『本義』用呂祖謙本, 次第既不同, 而或主義理, 或主象占, 本旨復殊. 先儒蓋說, 亦復見智見仁, 各明一義, 斷斷爲門戶之爭. 眞卿以爲諸家之『易』, 途雖殊而歸則同, 故兼對對采, 不主一說, 務存象數·義理二家之平, 即蘇軾·朱震·林栗之書爲朱子所不取者, 亦並錄焉. 視胡一桂之排斥楊萬里『易傳』, 不肯錄其一字者, 所見之廣狹, 謂之青出於藍可也. 惟其變易經文, 則不免失先儒謹嚴之意, 可不必曲爲之詞耳.

胡方平『易學啓蒙通釋』, 胡一桂『易學啓蒙翼傳』, 黃瑞節『朱子成書』를 합본한, 『性理大全』 수록의 『易學啓蒙附註』였다. 『性理大全』은 앞서 보았듯이 세종 원년(1419)에 이미 全帙이 수입되어 있었으며, 세조는 대군 시절 이 『性理大全』을 통해 『易學啓蒙』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학계몽요해』는 原註에 세조 자신의 '要解'와 신하들의 '補解'를 추가한 것으로, 「要解」는 오랜 독서의 과정에서 느낀 주해의 미비점을 부연하는 방식을 취하고, 諸臣들의 「補解」는 세조의 주해 부연 작업과는 별도로 『易學啓蒙附註』의 주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補解' 작업에는 『周易傳義大全』 외에 吳澄 撰 『易纂言』, 胡一桂 『易本義附錄纂疏』의 주해 내용이 주로 참조되었다.⁵⁰⁾

그런데 吳澄 撰 『易纂言』은 權近(1352-1409)이 『周易淺見錄』을 저술하면서 程頤 『易傳』과 朱熹 『周易本義』와 함께 가장 많이 참조·인용한 책이었으며,⁵¹⁾ 세조 『역학계몽요해』에도 적지 않게 인용되었으나 국내에는 (淸) 成德 校訂 通志堂經解本(12卷 首1卷)만이 전할 뿐이다. 『中國古籍善本書目』에는 通志堂經解本 외에 明萬曆刻本 1종이 저록되어 있다.

한편 胡一桂 『易本義附錄纂疏』는 『中國古籍善本書目』에 元刻本 1종이 저록되어 있으나, 국내 도서관의 諸目錄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董眞卿 編 『周易會通』이 胡一桂의 同書を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易學啓蒙要解』는 아마도 『周易會通』을 통해 『易本義附錄纂疏』의 내용을 인용한 듯하다.

3. (元)董鼎 撰 『書集傳輯錄纂註』

고려대 만송문고에는 『書』라는 書名를 지닌 元刊覆刻本 零本 1책이 소장되어 있다(晩松 貴 280 2). 이 책은 『中國古籍善本書目』에는 『書集傳輯錄

50) 魯耀翰, 『朝鮮初期 官撰 註解書의 文獻學的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2019, 제6장.

51) 강문식, 『權近의 經學과 經世觀』, 서울大學校 박사논문, 2005. '제2장 『오경천건록』의 구성 체재와 경학적 특징' 參照.

纂註』의 서명으로 저록되어 있다. 「사고제요」에 따르면 이 책은 蔡沈의 『書集傳』을 宗主로 하되, 『書集傳』의 뒤에 『朱子語類』와 다른 책에 실린 주희의 말을 續錄하여 輯錄이라고 하고, 또 서로 發明하는 諸說을 끝에 부록하여 纂註라고 하였다고 한다.⁵²⁾ 董鼎의 字는 季亨, 鄱陽人으로, 黃榦에게서 주자학을 전수받았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書 / 朱子 訂定; 蔡沈 集傳; 董鼎 輯錄纂註 / 木版本(覆元版)

零本1冊: 四周雙邊 半郭 19.3 × 12.4 cm, 有界, 10行20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下向黑魚尾; 25.5 × 16.7 cm.

『書林清話』에 의하면 劉君佐의 翠巖精舍에서 至正 14년(1354)에 董鼎 『尙書輯錄纂註』 6권을 간행한 일이 있다.⁵³⁾ 『中國古籍善本書目』에는 이 翠巖精舍本の 明修本과 함께, 『書集傳輯錄纂註』 6卷 又1卷 『朱子說書綱領輯錄』 1卷(元董鼎撰 元延祐5年 建安余氏勤有堂刻本)과 同書의 元 王元亮 點校本의 2종이 저록되어 있다.



<圖 23> 高麗大 晚松文庫藏 『書集傳輯錄纂註』 卷2 1-a(右)와 1-b·2-a(左)

52) 「書傳輯錄纂註提要」: “是編雖以蔡沈『集傳』爲宗, 而『集傳』之後續以『朱子語類』及他書所載朱子語, 謂之輯錄; 又采諸說之相發明者附列於末, 謂之纂註.”

53) 葉德輝, 『書林清話』 卷4 「元私宅家塾刻書」.

4. 鄒季友 音釋 『書集傳』과 『詩集傳』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書卷』이라는 書名の 元刊本 7권 7책이 소장되어 있다(C1-83). 이 서명은 『書』 혹은 『書集傳』의 잘못으로, 이 책은 蔡沈의 『書集傳』에 鄒季友의 音釋을 더한 것이다. 『中國古籍善本書目』에는 『書集傳』의 서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書集傳 / 蔡沈 集傳; 鄒季友 音釋 / 木版本(元版)

7卷7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3 × 11.8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下向黑魚尾; 25.0 × 15.5 cm

版心題: 書

表題: 書集傳, 書卷

刊記: 本堂今將書傳附入鄱陽鄒氏音釋 [...] 收書君子幸監 至正癸卯(1363)孟夏 宗文精舍謹識

印記: 江風山月莊, 稻田福圖書, 伊藤氏藏書記, 李王家圖書之章

紙質: 唐紙

『中國古籍善本書目』에는 鄒季友 音釋 『詩集傳』으로서 至正 11년 德星書堂刻本, 至正 14년 日新書堂刻本, 元刻本, 明初刻의 6권본을 기록하고 있어, 7권본인 장서각본과 권책수가 같지 않다. 한편 宗文精舍는 至順 1년(1330)부터 嘉靖 16년(1537)까지 존속한 建安 鄭天澤의 宗文書堂을 가리키는 듯하다.⁵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1478년 작성의 金宗直 발문을 지닌 蔡沈 集傳·鄒季友 音釋 『詩傳』 零本 1책이 소장되어 있다(想白古 181.113-J868s-v.19/20). 卷尾에 「成化十五年己亥(1479) 四月日密陽府開」의 刊記를 지녀, 1479년에 밀양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문 중간중간에 官印이 찍혀 있어, 지방관아에서 보관하던 책임을 알 수 있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54) 葉德輝, 『書林清話』 卷4 「元私宅家塾刻書」.

詩傳 / 朱熹(宋) 集傳 / 木版本

零本1冊: 四周單邊 半郭 24.2 × 17.0 cm, 有界, 10行17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
魚尾: 29.8 × 20.8 cm.

刊記: 成化十五年己亥(1479)四月日密陽府開口(刊)



<圖 24> 서울大學校 奎章閣 藏 『詩傳』 1-a(右), 1-b·2-a(左)



<圖 25> 서울大學校 奎章閣 藏 『詩傳』 金宗直 跋文(右)과 刊記(左).

卷末에 실려 있는 김종직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成化 14년(1478) 여름, 密山 朴 相公이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서, 학교를 일으키고 영재를 교육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였다. 이에 널리 州郡을 방문하여 書籍이 散逸된 것을 알고서, 마침내 世祖朝 때 인쇄한 口訣詩書 각 1부를 해당 읍에 나누어 간행하게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을 끝마쳤다. 宗直이 가만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문헌은 중국과 거의 같다고 일컬어지며 경상도는 실로 동방의 魯鄒와 같다. 국초로부터 經書의 판목이 없는 것이 없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殘缺되고 亡失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왕왕 간행한 책도 諸子의 異書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학자들이 모두 詞章의 학습에 힘쓰고 있으며 性理의 학문은 침체되어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아아 애석하다! 이제 공이 와서 먼저 이 일을 하시니, 근본을 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六經은 모두 道를 실는 그릇이며, 『詩』□□는 배움으로 들어가기에 더욱 쉽다. 이제 이 판본은 『集傳』이 있고 口訣이 있어, 初學의 선비들이 한 번 보면 모두 그 요지를 얻을 수 있으니 비록 諸家의 纂釋이 없다면 무슨 흠될 것이 있겠는가? 공을 이어서 오는 자가 공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경서가 더욱 크게 갖추어질 것이니 그것이 右文의 정치에 도모되는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무술년 10월 일 善山都護府使 金宗直은 삼가 발문을 쓴다.⁵⁵⁾

발문에서 김종직은 세조조 때 印行한 口訣 『詩』·『書』 각 1부를 간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 『詩傳』 이외에도 『書』가 함께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조는 즉위 11년이던 1465년 11월 12일에 禮曹로 하여금 본국(조선)의 先儒가 정한 四書五經의 口訣과 鄭夢周의 『詩』 口訣을 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서오경에 대한 구결 작업을 시작하였다.⁵⁶⁾ 이 사업은 崔恒이 총괄한 것으

55) 成化十四(1478)年夏, 密山朴相公出按嶺表, 首以興學有才爲念, 乃傳訪州郡, 知書籍散逸, 遂以世祖朝所印口訣詩書各一部, 分刊于鉅邑, 未幾工訖. 宗直竊嘆曰, 我國家文獻, 所稱倂擬中夏, 而慶尙一道, 實東方魯鄒也. 自國初經書之板, 莫不有之, 而歲久殘缺, 亡失殆盡, 往往刊書者, 亦不過諸子異書耳. □(由?)是學者, 率驚於詞章之習, 而性理之學, 浸以無聞, 吁可惜也! 今公之來也, 先及乎此, 其知本哉! 況六經皆載道之器, 而詩□□教人尤易, 今是本也, 有集傳, 有口□(訣), □初學之士, 一寓目之餘, 皆得其旨要, 雖□(無?)諸家纂釋, 庸何傷焉? 繼公而至者, 苟以公之心爲心, 則凡經書所未備者, 益以大□(備), 其上裨明右文之治, 烏可量已? 是歲戊戌十月日□(善山都護府使)金宗直謹跋.

로 추정되는데,57) 최항은 1468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58) 『經書小學口訣』에서 세조에 의한 구결 사업의 의의와 각 경서의 구결 담당자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각 구결 담당자와 교정자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周易』·『小學』: 世祖	『詩經』: 河東君 臣 鄭麟趾
『書經』: 蓬原君 臣 鄭昌孫	『禮記』: 高靈君 臣 申叔舟
『論語』: 漢城府尹 臣 李石亨	『孟子』: 吏曹判書 臣 成任
『大學』: 中樞府同知事 臣 洪應	『中庸』: 刑曹判書 臣 姜希孟

校正: 丘從直, 金禮蒙, 鄭自英, 李永垠, 金壽寧, 臣朴楗

이때 印刊되었을 구결본으로서는 『周易』의 구결본인 『周易傳義康寧殿口訣』이 확인될 뿐이었으며, 다른 구결본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그런데 김종직의 발문에 의하면 1479년 밀양에서 간행한 것은 세조조 때의 『詩經』과 『書經』 구결본이며, 이는 거꾸로 세조조 때 『詩經』 口訣本の 저본으로 蔡沈 集傳·鄒季友 音釋의 『詩集傳』이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59) 또한 이 규장각본은 판식과 활자로 볼 때 初鑄甲寅字 印本の 복각본으로 보이므로, 세조 때의 『시경』 구결 역시 초주갑인자로 印行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 규장각본에는 구결이 있어야 할 곳이 空格으로 되어 있다. 김종직은 발문에서 “今是本也, 有集傳, 有口口(訣), 口初學之士, 一寓目之餘, 皆得其旨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초각본에는 초주갑인자 印本과 마찬가지로 구결이 달려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초각본을 다시 복각한 것으로 보이며, 복각의 과정에서 구결을 산삭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직의 발문에 이어 당시 간행에 간여한 인물의 명단과 刊記가 나온다. 하단이 훼손되어 성명은 정확히 알 수 없다.

56) 『世祖實錄』 卷37, 世祖 11年 11月 12日 丙辰(1465, 成化1). “○令禮曹, 廣求本國先儒所定四書五經口訣, 與鄭夢周 『詩』口訣.”

57) 安秉禧, 「崔恒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새國語生活』 14卷 3號, 國立國語研究院, 2004.

58) 安秉禧,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奎章閣』 7, 서울大 奎章閣韓國學研究院, 1983.

59) 『書經』 口訣本の 底本 역시 蔡沈 集傳·鄒季友 音釋의 『書集傳』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兵馬水軍函

行都事朝散大夫許函

行府使通訓大夫大丘鎭管兵馬同僉節制使閔函

成化十五年己亥(1479)四月日密陽府開口(刊)

V. 나오며

이상 간단하게나마 經部를 중심으로 고려말-조선초에 수입된 중국본과 조선에서의 覆刻·活印의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 때는 서적의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조선전기에는 명나라 禮部에 咨文을 보내어 欽賜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선초 『사서오경대전』, 『대학연의』, 『자치통감』, 『통감강목』 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입된 서적들이었다. 그와 함께 조선 초에는 고려조에 전래하여 있던 주요 서적의 覆刻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려말-조선초에 수입되어 조선에서 복각되거나 재판집된 서적 중 경부에 속한 서적의 간행은 주자학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詳註本이 선호되었으며, 중국의 주해본을 그대로 복각하기보다 校正을 보는 것은 물론, 편차를 수정하거나 주석을 정리하는 등 열람에 편하도록 재판집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문헌에 斷句를 하고 圈發을 붙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白文本이 선호된 것과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고려말-조선초에 수입된 중국본과 그것을 저본으로 한 조선본에 대해 경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간단히나마 정리해 본 것으로, 『四書五經大全』, (元)董真卿 編 『周易會通』, (元)吳澄 撰 『易纂言』, (元)董鼎 撰 『書集傳輯錄纂註』, 鄒季友 音釋 『書集傳』과 『詩集傳』, 集賢殿 受命編 『春秋經傳集解』, 胡安國 傳 『春秋胡氏傳』, (宋)林堯叟 註 『春秋經左氏傳句解』, 李廉 輯 『春秋諸傳會通』 등을 다루었다. 다만 본고는 小學類의 서적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목록에서 확인하였지만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서적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부록: 조선초 경부 서적의 수입과 간행 사항

시기	서적 수입	서적 간행	서적 반사	비고
태종3 (1403)		계미자로 (宋)林堯叟 音註 『音註 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인쇄		
		李廉 輯 『春秋諸傳會通』 진산에 서 복각		
세종1 (1419)	『四書五經大全』, 『性理大全』			
세종6 (1424)	2월		『大學章句大全』 (경자자) 반사	
세종7 (1425)	10월	『性理大全』·『四書五經大全』 인 쇄를 위해 충청도·전라도·경 상도에 책지를 올리게 함		
세종8 (1426)	11월	『四書五經大全』, 『性理大全』, 『通 鑑綱目』		
세종9 (1427)	7월	경상도에서 『性理大全』 上梓하여 올림		
	9월	경상도에 『周易大全』·『書傳大 全』·『春秋大全』을 보내 刊板하 게 함		
	10월	전라도에 『詩傳大全』·『春秋大 全』을 보내 刊板하게 함		
	12월			卞季良 「四書五 經性理大全跋」 작성
세종10 (1428)	1월	강원도에서 『四書』 刊板 작업 중 간보고		
	12월			『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 간행 참여자에 게 미곡 하사
세종11 (1429)	2월	경상도에서 『周易大全』·『書傳 대전』·『春秋大全』 책판을 올림	『周易大全』· 『書傳大全』· 『春秋大全』 반사	
	3월	전라도에서 『詩傳大全』·『禮記 大全』 책판을 올림		
	4월	강원도에서 『四書大全』 50권을 인쇄하여 올림		

시기	서적 수입	서적 간행	서적 반사	비고
세종13 (1431)		(宋)林堯叟 音註 『音註全文春秋括 例始末左傳句讀直解』 간행		同년 5월 金致 明 작성 발문
		(宋)林堯叟 註 『春秋經左氏傳句解』 』 청도에서 간행		“宣德六年(1431) 十一月日濤道開 板”의 刊記 同년 朱邵 작성 발문
세종16 (1434)		『資治通鑑思政殿訓義』 편찬령		
세종17 (1435)			『詩傳大全』(갑 인자) 반사	
세종18 (1436)			『資治通鑑思政 殿訓義』 반사	
세종21 (1439)		(宋)胡安國 傳·(宋)林堯叟 音註 『春秋胡氏傳(附林堯叟音註括例始 末)』 간행		同년 11월 작성 柳義孫 발문
세종22 (1440)		『春秋經傳集解』 간행령을 내림		
세종24 (1442)			『春秋經傳集解』 (갑인자) 반사	
단종2 (1454)		(宋)林堯叟 音註 『音註全文春秋括 例始末左傳句讀直解』 금산에서 복각		同년 6월 李璠 작성 발문
세조연간		을해자로 『四書五經大全』 인쇄		
성종10 (1479)		蔡沈 集傳·鄒季友 音釋 『詩傳』 밀양에서 간행		성종 9년(1478) 작성 김종직 발문
성종연간		을해자로 (宋)林堯叟 音註 『音註 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인쇄		
		을해자로 (宋)胡安國 傳 『春秋胡 氏傳』 인쇄		
증종 명종연간		갑인자로 (宋)林堯叟 音註 『音註 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인쇄		
		갑인자로 (元)朱申 句解·(明)劉端 仁 校正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 인쇄		

〈參考 文獻〉

■ 資料

- 『論語集註大全』, 서울대 규장각 소장 경자자본(一簣古貴 181.1-H65nb).
- 『論語集註大全』, 서울대 규장각 소장 목판본(古貴 1333-11).
- 『書經集傳大全』, 고려대 민송문고 소장 목판본(만송 A2 A1W, 만송 A2A1X).
- 『周易傳義大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明版覆刻本(一山貴1231-23).
- (元)董眞卿 編 『周易會通』,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한貴古朝03-28).
- (元)吳澄 撰 『易纂言』.
- (元)董鼎 撰 『書集傳輯錄纂註』, 고려대 민송문고 소장본(만송 貴 280 2).
- 鄒季友 音釋 『書集傳』과 『詩集傳』,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C1-83).
- 集賢殿 受命編 『春秋經傳集解』, 고려대 민송문고 소장본(만송 貴290); 국립중앙도서관 일산문고 소장본(一山貴1235-13).
- (宋)林堯叟 音註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貴 1235-104).
- 覆癸末字本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古貴1326-7; 一簣 古181.1-Im 2e; 가람 古181.1-Im2e-v.1).
- (元)朱申 句解,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誠菴1-153); 日本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본(別031-0001).
- 胡安國 傳 『春秋胡氏傳』, 고려대 민송문고 소장본(만송 貴195C); 화산문고 소장본(화산 貴195E 6); 신암문고 소장본(신암 貴195F 5); 화산문고 소장 여말선초간본(화산 貴195H 3); 화산문고 소장 을해자본(화산 貴195G 1).
- (宋)林堯叟 註 『春秋經左氏傳句解』;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성암1-191~193).
- 李廉 輯 『春秋諸傳會通』,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貴古朝07-18).
-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中國古籍善本書目: 經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全寅初 主編, 『(韓國所藏)中國漢籍總目』, 學古房, 2005.
- 섭덕휘 지음, 박철상 옮김, 『서림정화』, 푸른역사, 2011.

■ 論著

- 강문식, 『權近의 經學과 經世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동민, 「『春秋』三傳과의 비교로 본 胡安國『春秋』해석의 특징- 春秋 隱公조목의 쟁점을 중심으로-」, 『陽明學』 제37호, 한국양명학회, 2014.
- 金文植, 「朝鮮時代 中國書籍의 輸入과 刊行」, 『奎章閣』 2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 김성준 편, 『鶴山李仁榮全集』(4책), 국학자료원, 1998.
- 노요한, 『朝鮮初期 官撰 註解書의 文獻學的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朴文烈, 「清芬室書目考(1)-특히 鶴山의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中心으로-」, 『圖書館研究』 제22권 제3호, 한국도서관협회, 1981.
- 박문열, 「清芬室書目考(2)-특히 鶴山의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中心으로-」, 『圖書館研究』 제22권 제4호, 한국도서관협회, 1981.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3, 태학사, 2012.
- 安秉禧, 「崔恒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새國語生活』 14卷 3號, 國立國語研究院, 2004.
- 安秉禧,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奎章閣』 7, 서울대 奎章閣韓國學研究院, 1983.
- 이재준, 「朝鮮時代 內賜印의 類型 研究」, 『書誌學研究』 第68輯, 書誌學會, 2016.
- 鄭亨愚,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東方學志』 63,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9.
- 林穎政, 『明代春秋學研究』, 致知學術出版, 2014.

■ 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제공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한국고전적중합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Abstract

A Research on Importation and Publication of Chinese Books in the Early Chosŏn Period: Focused on the Category of Confucian Classics

Noh, Johann*

This article explores the importation and the publication of Chinese Books in the late Koryŏ and early Chosŏn period focusing on the category of Confucian classics. King Sejong endeavored to realize his ideal of establishing a country of Confucian culture by studying Confucian classics renovating the national cultural system based on that. He struggled to adopt the academic and cultural achievement of Ming China through Chinese classics of the four categories of Jingshi ziji (經史子集, jing-classics, shi-histories, zi-masters and ji-collections)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to organize the cultural system, of newly established country. He sought to obtain the fine copies of Chinese books through several routes not only to publish or reprint them, but to compile and print the wholly new editions with annotations based on study with scholars at Chiphŏnjŏn Hall.

Then, what were the books that the king and the scholars scrutinized the principle of Confucianism with in the royal lecture at that time? What were the original texts that were used when they edited wholly new editions based on them. Chosŏn court had to send an official letter (咨文) to the ministry Rites (禮部) of Ming China to obtain books which were granted as imperial gifts. It was the only way to obtain books from Ming China though it was relatively easy to import books from Yuan China under relatively few regulations. *Sishu Wujing Daquan* (四書五經大全), *Daxue Yanyi* (大學衍義), *Zizhi Tongjian* (資治通鑑), *Tongjian Gangmu* (通鑑綱目) that were imported via that route in the early Chosŏn period are the good examples. Along with this, books passed down from Koryŏ dynasty were also republished in the early Chosŏn period. This article examined the importation and publication of Chinese books in the early Chosŏn period including *Sishu Wujing Daquan* (四書五經大全), *Zhouyi Huitong* (周易會通), *Yizuanyan* (易

*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 yhnoh1214@korea.ac.kr

纂言), *Shujizhan Jiluzuanzhu* (書集傳輯錄纂註), *Yinshi Shujizhuan* (音釋書集傳), *Yinshi Shijizhuan* (音釋詩集傳), *Chunqiu Jingzhuan Jijie* (春秋經傳集解), *Chunqiu Hushizhuan* (春秋胡氏傳), *Chunqiu Zuoshizhuan Jujie* (春秋經左氏傳句解), *Chunqiu Zhuzhuan Huitong* (春秋諸傳會通).

【Key words】 Chinese Books, Books with annotations, The Category of Confucian Classics, *Sishu Wujing Daquan* (四書五經大全), *Zhouyi Huitong* (周易會通), *Yizuanyan* (易纂言), *Shujizhan Jiluzuanzhu* (書集傳輯錄纂註), *Yinshi Shujizhuan* (音釋書集傳), *Yinshi Shijizhuan* (音釋詩集傳), *Chunqiu Jingzhuan Jijie* (春秋經傳集解), *Chunqiu Hushizhuan* (春秋胡氏傳), *Chunqiu Zuoshizhuan Jujie* (春秋經左氏傳句解), *Chunqiu Zhuzhuan Huitong* (春秋諸傳會通)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